

라면 하나 먹어도 나만의 레시피로



“나만의 레시피로 라면을 요리하는 학생의 모습을 그려줘”라는 요청에 챗GPT가 만든 그림.

챗GPT

Cover Story 고정관념 깬 꿀조합을 찾아라... K푸드 '모디슈머' 열풍



SNS에서 유행하던 신라면 두움바 레시피가 농심의 신제품으로 출시됐다.

농심

“신라면에 우유와 치즈, 새우와 베이컨을 넣어 매콤하고 부드러운 두움바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장지후 군(19)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기존 레시피를 취향에 맞게 변형해 요리하거나 자신만의 꿀조합을 만들어 먹곤 합니다. 장군은 “기성 제품을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 따라 만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새롭게 시도해본다”면서 “SNS에서 유행한 레시피나 식품 조합을 상품화해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모디슈머’란 수정한다는 뜻의 ‘modify’와 소비자라는 뜻의 ‘consumer’가 더해진 단어로, 기성 제품에 소개된 조리법이나 사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수정·조합·변형하여 요리나 제품을 즐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메뉴와 레시피를 시도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기존 관습이나 제품 사용법을 획일적으로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욕망과 개성을 추구하는 MZ세대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따라하는 것을 재미있는 요리놀이로 인식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다양해진 것도 모

디슈머 트렌드에 일조했습니다. ‘먹방(먹는 방송)’이 유행하면서 ‘신상출시 팬스토랑’ 같은 TV프로그램과 ‘AmiAmi: 아미아미’, ‘면상호’ 등 먹방 유튜브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SNS로 요리 꿀팁과 일상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모디슈머 기원에는 ‘짜파구리’가 있습니다. 짜파구리는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조합해 만든 라면으로 예능 ‘아빠! 어디가?’, 영화 ‘기생충’ 등에 레시피가 소개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후 각종 라면의 변형 레시피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레와 너구리 라면을 조합한 ‘카구리’, 우유·치즈와 진짬뽕을 조합한 ‘크림 진짬뽕’, 순두부 열라면, 까르보불닭 등의 레시피는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어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디슈머 열풍은 최근 뷰티업계까지 확대됐습니다. 정해진 용도 외 다양하게 활용하는 ‘용도 파괴’ 뷰티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파운데이션을 입술에 발라 립 제품의 색감을 더 예쁘게 연출하는 유행은 곧 립 펜슬·누드 립으로, 오동통한 입술 연출을 위해 하이라이터를 입가에 바르는 유행은 글로시립·립 플럼퍼와 같은 신제품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화장품과 의약품의 섞어 나만의 스킨케어를 만드는 ‘DIY 케어’도 유행입니다. SNS에서는 약국 뷰티템 조합 추천이나 후기를 담은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순 기자·장해린 인턴기자



국가공인 **매경 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수험표 할인 특권·첫 알바의 설렘...맘껏 누리자



소곤소곤 우리들 이야기

영화·놀이공원·항공권 등
수능 끝나자 할인 스타트

대학입학까지 남은 3개월
영어 등 자격증 공부하고
알바로 관계 쌓고 배우며
미뤘던 꿈을 펼쳐보길



롯데월드는 30일까지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최대 57%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월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입시와 수능을 준비하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공부의 연속에서 여러분이라는 꽃봉오리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즐기려 끈기 세우고 결국 찬란하게 꽃을 피워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긴 꿈과 열정을 다시 꺼내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 학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험표 할인

“고생 끝에 할인 온다.” 지금까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을 격려하고자 올해도 다양한 업계에서 수험표 할인을 제공합니다. 먼저 영화관 4사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과 협업해 수험생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CGV와 시네Q는 14일부터 30일까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수험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롯데월드는 수험생을 위해 전국 5개 사업장에서 최대 57%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종일권은 2만6000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종일권을 2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2025 수능시험 수험생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선 25%, 국제선 최대 10% 할인 운임으로 왕복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방학 동안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들은 대학교 진학 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수능 직후 취득하기 가장 좋은 자격증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운전학원에 다니면서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익(TOEIC)은 영어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자격증으로, 수능 영어 공부를 베이스로 해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높은 성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경테스트는 경제·경영 이해력 인증시험으로 경제·경영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응용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20대를 맞이해 경제적 자립심과 비즈니스 창의력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며, 경제·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학교 전공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몬이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에게 실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능이 끝나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 1위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첫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면서 실제 업무 환경을 체험하고,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학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나 여가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의 소중함을 배우며 경제적 자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김민성 인턴기자

경제공부 필수품
은·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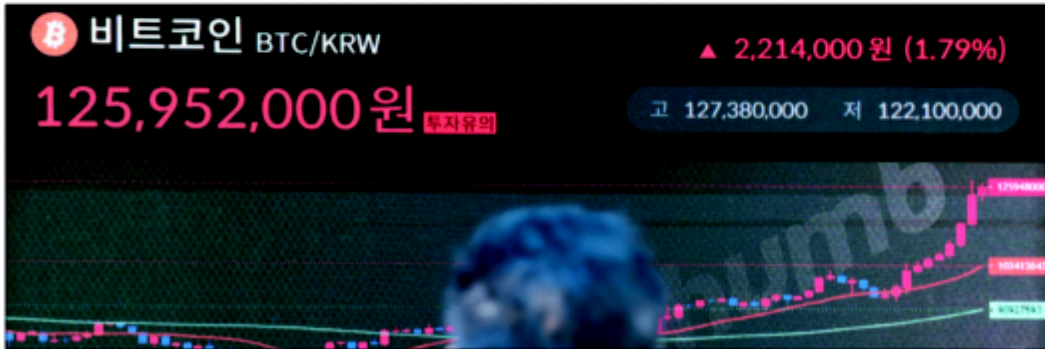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격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매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트럼프 트레이드 승자’ 비트코인 9만弗 터치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9만달러(약 1억2670만원)를 돌파한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빙셀라운지 시험관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코인 뛰면 강남 집값도 뛴다” 연구도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며 9만달러도 넘어섰습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 기대감에 선거 전부터 시작된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선 비트코인보다 도지코인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당시 가상자산

▶ NIE 준비하기

1.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봅시다.
2.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논의해봅시다.

과 주식 시장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서 얻은 수익을 부동산으로 재투자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교수는 “강남 아파트가 비트코인과 코스닥시장 가격 변동에 더 크게 반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 11월 13일 A2면

코스피 2500 붕괴, 원화값 1400원 돌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후폭풍으로 코스피 2500 선이 무너지고, 달러당 원화값은 1400원 아래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국가인 한국, 대만 등이 미국의 새 무역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외국인투자자가 아시아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에선 개인 자금이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로 이동하면서 하락 종목이 1464개를 기록하며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에 금융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개발연

▶ NIE 준비하기

1.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한국과 같은 대미 무역 흑자 국가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2. 외국인투자자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주요 이유와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논의해봅시다.

구원(KDI)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2%로 하향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딘 영향 탓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당초 2.1%에서 2.0%로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성장률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충격으로 7%에서 2.1%로 대폭 꺾일 전망이다. 매일경제 11월 12일 A1면

의대 증원 후 첫 수능 ... 국영수 쉬웠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영수 모두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의과대학 증원 후 첫 수능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재수생 이상 수험생)이 몰리면서 까다로운 문제가 상당수 출제될 것이라 예측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던 지난해보다 쉬워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위권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한두 문항 차이로 당락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4일 학원가에 따르면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 NIE 준비하기

1. 의과대학 증원 후 수험생 증가가 수능 난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봅시다.
2. 올해 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된 이유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입시 경쟁의 변화를 논의해봅시다.

쉽고, 9월 모의평가(모평)보다는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수능까지 두 달여간 공부를 더 했다는 가정 하에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9월 모평과 비슷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매일경제 11월 14일 A1면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9만달러

트럼프 트레이드로 상한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

달러당 1400원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붕괴된 심리적 마지노선

16만1784명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N수생 수



“로제가 만드는 김볶”…K푸드, 세계를 홀리다



‘로제가 만드는 김치볶음밥’.

보그 유튜브 캡처

K팝·K콘텐츠 인기 힘입어
냉동김밥·떡볶이 인기
올해 K라면 수출 10억달러
1조 클럽 앞둔 불닭볶음면
2분기 78%가 해외 매출
고추장·고춧가루·간장…
유럽·북미서 웰빙食 열풍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APT.)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 패션잡지 보그(Vogue)의 유튜브 채널에는 ‘로제가 만드는 김치볶음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요리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조회 수는 단기간에 50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흑백요리사’)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에 오르며 외국인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K팝, K콘텐츠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K푸드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까지의 한국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약 81억9000만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쌀가공식품과 라면의 수출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냉동김밥, 즉석밥, 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의 누적 수출액은 2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했습니다.

냉동김밥은 틱톡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의 유명 식료품 체인인 트레이더조스(Trader Joe’s)에서 품절 사태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슈가 된 냉동김밥 가격은 3.99달러(약 5500원)로, 미국의 평균 한 끼 식사 비용인 10달러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의 가성비비를 자랑합니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이 우수해 소비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푸드하면 대표적 제품인 라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월까지 한국 라면의 누적 수출액은 10억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70.9%나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면의 글로벌 인기를 견인하는 제품은 단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입니다. 올해 2분기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

은 4244억원으로, 그중 78.3%가 해외 매출로 집계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액 5540억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단일 브랜드 연 매출 1조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은 K콘텐츠 인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영화 속에서 출연자들이 한식을 즐기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달고나와 달고나 만들기 키트의 해외 판매량이 급증했고,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과 예능 ‘서진이네’에 등장했던 약과가 트렌디한 K스낵으로 알려지며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김치, 라면, 잡채 등을 먹는 ‘먹방’ 영상이 해외 유튜브와 틱톡에서 인기를 끌며 관련 챌린지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웰스케이어에 대한 높은 관심도 K푸드의 흥행 비결로 꼽힙니다. 채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물성 식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소가 특징인 한식이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식의 베이스인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김치 등은 발효 과정에서 특유의 풍미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깊고 풍부한 맛은 K푸드만의 매력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의 K푸드 유행은 김치·비빔밥·불고기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 한식’의 유행이 아닌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K푸드의 인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일PwC는 ‘한국인의 매운맛: K푸드’ 보고서에서 “현재 해외 시장 진출 초창기 수준으로, 지역·카테고리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고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K푸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국내 생산 후 수출이라는 기존 방식을 넘어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판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세윤 인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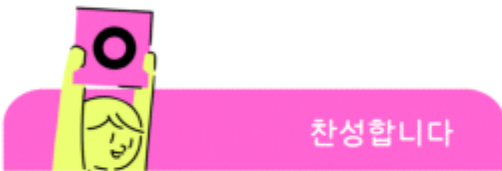
‘스플래시 불닭’. 삼양라운드스퀘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vs “사회적 비용 너무 커”

9월 학기제 도입하러나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제도, 학제 개편 등의 방향성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교위 관계자는 “9월 학기제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학기제 개편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9월 학기제가 도입되면 여름방학이 길어져 학생들에게 휴식과 경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학기제가 이미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만큼, 이를 개편할 경우 수능을 포함한 대입 일정과 공무원 시험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찬성합니다



이의있어요

▶ 길어진 여름방학, 경험의 기회

9월 학기제가 도입되면 여름방학이 길어지게 되어 학생들에게 휴식의 시간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9월 학기제를 택한 국가들은 대부분 방학 기간이 한국보다 길다. 한국의 여름방학 기간은 4주가 채 안 되지만, 다른 국가들의 여름방학은 보통 2-3개월로 길고 겨울방학이 1-2주로 짧습니다. 현행 학기제에서는 긴 학기에 비해 짧은 방학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긴 여름방학은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방학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기 중에는 하지 못했던 봉사활동, 해외 여행 등 다양한 교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식견을 넓혀줍니다.

▶ 외국 대학과 협력·교류에 도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9월에 학기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사 일정을 도입하면 외국 대학과의 협력이나 학생·교직원 교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유학생, 교환학생들이 국내외에서 학업을 이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현재는 해외 대학 유학생들 대부분이 2월에 졸업한 후 9월 초 입학 전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국 인재들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한국의 대학 역시 능력 있는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취업·채용 등 전반적 혼란

9월 학기제로의 개편은 현재의 3월 학기제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큼니다. 3월 학기제는 이미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오면서 교육 체계뿐 아니라 입시 일정,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 일정 등 다양한 국가 시스템에 맞춰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9월로 변경하면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 채용 등 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학기제 전환은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입시 일정이 혼란스러워지면 시험 준비 시기가 바뀌고, 학습 계획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에 큰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큼니다. 학기제 변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교육적·사회적 이익을 가져올지 면밀한 검토와 속고 가 필요합니다.

▶ 입학 연령 어려워 교육 불균형

9월 학기제를 도입하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기존보다 약 6개월 어려워집니다. 이른 초등학교의 입학은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6개월만 차이가 나도 학습 능력과 신체 발달에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집단 생활 적응이나 학업 성취도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동일한 학습 자료와 과제를 제공받아도 어린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거나 또래보다 뒤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 동기가 저하되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도연 인턴기자

핵심!

- 여름방학이 길어진다고 학생들의 경험이 풍부해질까
- 학제 개편, 국제 기준을 따라가야만 할까
- 9월 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 최소화하려면

자유이용권, 비용 더 들어도 만족스러운 까닭

Q.

지난 주말 놀이공원에 다녀왔어요.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많았는데, 줄이 길어서 결국 몇 개 못 타고 온 거 있죠. 자유이용권을 구매했는데, 놀이기구 세 개밖에 못 타고 오다니요! 재밌게 놀고 오긴 했지만 야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입장권만 사서 들어갈까 고민도 했었어요. 오늘도 사람이 많은 걸 예상하긴 했거든요. 함께 간 친구들이 자유이용권을 고집하길래 저도 함께 자유이용권을 구매했어요. 기구 탈 때마다 표를 살 생각하니 꺼리는 마음도 있긴 했고요. 비용이 더 드는 걸 알면서도 자유이용권을 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김나연 선생님의
쉬운 경제

A. 연휴나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기 있는 놀이기구엔 매우 긴 줄이 늘어서 있죠. 저도 자유이용권을 사서 들어갔는데, 줄 서는 데 시간을 많이 써서 놀이기구를 몇 개 못 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고, 기구 하나 탈 때마다 돈을 내는 게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합니다.

휴양지 여행 상품도 비슷해요. 호텔 숙박뿐 아니라 스포츠 액티비티, 스파, 마사지, 바비큐 등등 여러 가지 활동과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주는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일종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같은 거죠. 예전에 이런 여행 상품을 택해서 발리에 여행한 적이 있는데,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이용한 활동, 서비스, 숙박료를 각각 따로 계산해 보니 그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저랑 함께 간 친구 가족은 모든 활동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지불했습니다. 숙박료도 여행하며 지불했죠. 모두 똑같은 걸 즐기는 여행을 했지만, 제가 친구보다 여행 만족감이 더 높았어요.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에서도 신기하게 각각 따로 비용을 지불해서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이 패키지로 모든 비용을 묶어서 더 높은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한 사람들보다 만족감이 낮았어요. 이용한 서비스의 양과 질은 같고, 더 적은 비용을 지불했다면 만족감이 더 커야 하는데 말이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불의 고통'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불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저는 여행비를 한 번에 지불했어요. 여행 떠나기 한참 전이죠. 큰돈이 한 번에 나가니까 결제하기 전에 고민하고 카드를 내밀며 두 손이 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행할 땐 이미 지나간 옛일이 되었습니다. 여행 시에는 지불의 고통을 이미 잊은 지 오래되었죠. 하지만 친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 이 서비스를 이용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또 이용하면서도 지불의 고통을 매번 느끼거든요. 저는 발리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지만, 친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댄 에리얼리의 관찰에 따르면, 이렇게 매번 이용 시마다 결제하는 게 소비를 덜 하도록 절제시키는 효과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만족감의 정도, 행복감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패키지로 미리 높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이 여행을 온전히 즐기며 더 행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온연 중에 매번 소비할 때 지불의 고통을 느끼기 싫기에, 놀이공원에서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풀옵션의 여행 상품을 고르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지불의 고통을 제거하면 돈을 보다 더 자유롭게 쓰고 소비를 더 많이 즐기게 돼



휴양지 패키지.

제공DB

요. 반대로 지불의 고통을 늘리면 지출에 대해 절제를 하게 돼서 지출이 줄어들지요. '행복하려면, 미리 돈을 많이 지불하세요'가 결론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학 입학 축하 기념 가족 여행이나, 일생에 한 번 가게 되는 신혼여행이라면 지불의 고통을 줄이고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을 마음껏 즐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룻길에 과일주스를 자주 마시고자, 주스 가게에 미리 20잔 주스 가격을 지불해 두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미리 20잔어치의 비용을 내두면, 20잔 주스를 마실 때까지 공짜라고 느끼며 매일 마시게 될 수 있거든요. 한 잔 마실 때마다 지불해야 하면 한 달에 10잔 마실 걸 이렇게 미리 결제해두면 한 달에 20잔을 마실 수도 있을 거예요. 미용실에 회원권으로 20만원 혹은 30만원을 미리 결제해두면 그 금액에서 갈 때마다 시술 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이렇게 회원권을 끊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원권이 있으면 '파마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왕 회원권이 있으니 더 여러 가지 시술을 맘 편히 하게 되더라고요. 회원권으로 결제하면 할인이 있는 경우, 그 할인으로 인한 혜택과 내가 괜히 더 헤프게 쓰게 되는 단점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 실험경제반 운영



소비와지불의 디커플링

소비하는 시점에 비용을 지불하는 걸 '소비와 지불이 커플링'되어 있다고 하고, 두 시점이 다른 걸 '소비와 지불이 디커플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비와 지불이 커플링되어 있을 때 지불의 고통이 커서 절약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비에서의 만족감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소비와 지불이 디커플링되어 있는 경우 씬씬이 커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할 때의 만족감은 더 클 수 있고요.

스마트폰 속 은행 ‘핀테크’... 돈 관리법도 척척

핀테크 회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말로, 돈과 관련된 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회사를 말한다. 핀테크 회사가 생겨난 배경과 일상생활에서 핀테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핀테크 회사는 왜 생겼을까?

옛날에는 은행에서 돈을 보내거나 받으려면 직접 은행에 가서 줄을 서야 했다. 친구에게 용돈 5000원을 빌려줬다가 다시 받을 때, 은행에 가서 종이서류를 작성하고 “5000원을 내 계좌에서 꺼내 친구 계좌로 보내주세요”라고 해야 했다. 송금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차를 기다린 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몇 번 터치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앱을 열고, 친구 이름을 누르고 5000원을 보내면 ‘끝’이다. 이처럼 핀테크는 돈과 관련된 일을 빠르고 편리하게 바꿔주기 위해 생겼다.

2. 핀테크 회사가 하는 일

핀테크 회사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결제와 송금 서비스

핀테크 회사들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거나 물건을 살 때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학교 매점에서 간식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간식 값을 바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친구 생일 선물을 모을 때, 핀테크 앱으로 각자 몇천 원씩 보내 편하게 돈을 모아 선물을 살 수 있다.

은행 업무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핀테크 회사 덕분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엄마가 세뱃돈을 관리하려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핀테크 앱으로 바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관리할 수 있다.

돈을 똑똑하게 관리하기

핀테크 회사는 금융소비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주고, 돈을 더 잘 모으는 방법도 추천해 준다. 만약 매달 용돈의 절반을 게임 아이템에 쓰고 있다면, 핀테크 앱이 “이달엔 아이템 대신 저축을 더 해보는 건 어때?”라고도 알려줄 수 있다.

새로운 돈 만들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핀테크 회사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돈도 만들고 있다. 게임에서 골드나 코인을 모으는 것처럼, 가상화폐는 실제 돈처럼 인터넷에서 사고팔 수 있다. 이 돈은 블록체인 기술로 아주 안전하게 관리된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묶어 체인처럼 연결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중앙 서버 없이 여러 컴퓨터에 동시에 기록되어, 누구나 데이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가 어렵고 안전해서 가상화폐,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모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은행이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핀테크 앱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다. 시골에 살고



게티이미지뱅크

있어서 은행이 없다면, 핀테크 앱을 사용해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다.

3. 핀테크 회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핀테크 회사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매점에서 간식을 결제할 때, 지갑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결제할 수 있다. 매달 용돈을 받은 후 어디에 썼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핀테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마가 용돈을 보내줄 때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몇 초 만에 보낼 수 있다. 온라인 쇼핑도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4. 핀테크 회사가 만들어 갈 미래는?

핀테크 회사는 앞으로 우리가 돈을 쓰고 관리하는 방법을 더 재미있고 똑똑하게 바꿀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용돈을 아껴썼다면 핀테크 앱이 “잘했어! 이번 달엔 2000원을 더 모았네!”라고 칭찬해 줄지도 모른다. 돈을 모으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면, 앱이 “자, 이번 달 목표까지 5000원 남았어. 조금만 더 아껴 보자!”라고 도와줄 수도 있다.

5. 핀테크는 왜 중요할까?

핀테크는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을 더 쉽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엄마와 아빠는 핀테크 덕분에 공과금을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고, 우리는 매점에서 핀테크 앱으로 간식을 결제할 수 있다.

핀테크는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제는 핀테크를 활용해 돈을 관리하고 쓰는 방법을 더 똑똑하게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시대이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고객관리센터



김형리의 금융의 역사



시사용어 CHECK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한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다. 주로 투자, 결제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본 역사왜곡 맞서 ‘민족정신’ 강조한 박은식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를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 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박은식·‘한국통사’)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박은식 선생 초상화.

국가보훈처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망경DB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독립운동가 박은식은 민족정신으로서 ‘조선 국혼’을 강조하였다. 그는 민족사를 연구하면서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면 언젠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박은식을 비롯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왜 민족정신을 강조했을까.

일본은 왜 우리 역사를 왜곡했나요?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본은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인 스스로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 미개한 민족과 달라서,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진 바 없는 민족이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역사책도 많고... 그로 인해 헛되이 독립국의 옛꿈을 떠올리게 하는 폐단이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1916년 ‘조선 반도사 편성의 요지 및 순서’) 하지만 일본은 도쿄제국대학의 역사학자까지 동원하여 한국사의 독자적인 발전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만들고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아래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식민사관이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입니다. 타율성론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중국)과 해양 세력(일본) 사이에서 옆 나라의 영향, 간섭 등을 받으며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체성론은 한국의 역사 발전이 정체되어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근대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세계사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주변 국가의 영향, 흥망성쇠 등을 한국에만 적용하여 한국인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독립운동의 의지를 꺾으려 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식민사관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신채호, 박은식 등은 민족주의 사학을 통해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항하였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정신이 민족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채호는 민족 고유의 정신(낭가사상)을 강하게 유지

할 때 고대 고구려나 백제처럼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민족정신이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고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을 강조했습니다. 신채호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강조하며 유학자 김부식을 비판하고 큰 나라에 대한 사대를 반대한 묘청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는 민족정신이 강렬했던 고대사 연구에 집중하며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남겼습니다.

박은식은 신채호의 민족정신(낭가사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혼’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민족정신(혼)을 지키면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정신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을 정리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민족정신을 박은식이 ‘혼’이라고 말하듯 정인보는 ‘얼’, 문일평은 ‘조선 심(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정인보는 그의 글에서 ‘누구는 어릿어릿하는 사람을 보면 얼 빠졌다고 하고, 멍하니 앉은 사람을 보면 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민족정신 ‘얼’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식민사관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민족주의 사학이 민족정신을 강조한 것과 달리 사회주의자 백남운은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사학’을 주장하였습니다. 마르크스 유물사관에서 역사 발전 단계는 내부의 모순, 갈등 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다음 사회로 발전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 백남운은 그의 책 ‘조선사회경제사’에서 ‘한국사 역시 다른 나라들과 같이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의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당시 ‘한국은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다’는 일본의 정체성론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남운은 세계적인 일원론적 역사법칙에 따라 한국사도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고 주장합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 1 일본이 식민 지배를 위해 왜곡한 역사관은? 식민사관
- 2 박은식이 강조한 민족정신의 개념은? 국혼(혼)
- 3 정체성론을 비판한 대표적인 사회경제사학자는? 백남운

“수카바티 안양!”… 축구로 하나된 도시

〈극락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K리그2 우승과 K리그1 승격을 확정된 FC안양 팬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항뉴스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꼭 멀리 가야 여행이 아니다. 익숙한 우리 동네도 시선을 달리 하면 여행지가 될 수 있다. 나는 때때로 동네 여행을 한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 그럴 땐 놀다니던 골목마저도 다 새롭다. 이가을 나는 경기도 안양시의 여행자다.

원래 서울에 살던 나는 2020년부터 안양으로 이사와 살고 있는데, 5년 만에 안양 사람이 됐다. 안양에는 구도심인 만안구와 신도심인 동안구가 있다. 나는 구도심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좋아 만안구에 자리 잡았지만 걸어서 15분 거리인 동안구에도 자주 놀러간다.

집 앞을 나서자마자 안양천이 펼쳐진다. 붉은 빛꽃과 개나리가, 가을엔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잉어와 오리들이 평화롭게 물에서 노닐고, 하늘엔 연날리기가 한창이다. 그 풍경들을 지나 안양예술공원까지 걷는다. 안양예술공원 초입의 김중업 건축박물관이 먼저 반겨준다. 20세기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위대한 이 건축가의 예술혼과 만날 수 있는 박물관에서 “건축이란 희열을, 삶에의 찬가를, 노래와 춤과 시와 로망을 던져주는 것…살고 싶어져야 하잖은가. 꿈이 있고 시가 있고 사람들이 용기종기 정답게 모여 살고 싶어져야 하잖은가”라는 육필 원고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진다.

안양예술공원은 예전엔 안양유원지로 불렸다. 한때 낙후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지금은 안양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 됐다. 관악산과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물을 따라 숲과 산책로가 정비되었고, 음식점과 카페가 즐비하다. 예술공원답게 국내외 예술가들의 조각과 건축 등 설치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버스킹 공연도 심심찮게 열린다.

안양예술공원에서 관악산 둘레길을 따라 망해암까지 오를 수 있다. 완만한 경사의 숲길을 30분 정도만 걸으면 된다. 신라 문무왕 때인 655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인 망해암은 일몰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해가 누엣누엣한 무렵 망해암에서 일몰을 감상한 후 변화가로 가는 건 내 단골 코스다. 안양에는 두 곳의 큰 상업지구가 있다. 만안구의 안양일번가와 동안구의 평촌일번가문화의거리다. 안양을 양분하는 대형 상권이자 젊음의 거리로 쇼핑, 외식, 문화생활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세련되고 화려한 핫플레이스보다 재래시장에 마음이

기울어진다 보면 만안구의 안양중앙시장이나 동안구의 평촌 농수산물시장을 찾으면 된다. 나는 안양중앙시장에서 떡볶이와 김밥, 호떡, 순대국밥을 즐겨 먹는다. 노포들이 즐비한 순대볶음거리는 늘 손님으로 북적거린다.

안양에 오면 지역 명물인 콩비지감자탕을 먹어봐야 한다. 콩비지가 듬뿍 들어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그 국물 맛은 영혼을 위로해준다. 병목안시민공원 부근의 ‘두루터’에서 먹는 만두전골, 중앙시장 ‘장내동육칼’의 도가니전골, ‘맛돌을터’로 이름을 바꾼 옛 ‘저자거리’의 갈비탕, ‘정호식당’의 해물탕, 안양예고 앞 ‘할아버지장작구이’ 통닭, 안양종합운동장 근처 ‘관악관’의 평양냉면, ‘운봉산장’의 양갈비수육도 늘 그리운 메뉴들이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의 성지인 분식집 ‘모이세’와 옛날 세탁소 카페로 바꾼 ‘삼일커피’, 비빔국수를 시키면 잔치국수를 서비스로 주는 ‘잔치집 가나’, 추억의 경양식집 ‘명가돈까스’, 서민들을 위해 수십 년째 2800원짜리 한우해장국을 파는 ‘남부식당’도 빼놓을 수 없다.

인구 55만의 도시지만 프로 스포츠 구단이 세 팀이나 있을 정도로 지역민들의 스포츠 사랑이 뜨겁다. 안양에는 농구의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아이스하키의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 축구의 FC안양이 있다. 이 중 FC안양은 감동적인 서사를 가진 팀이다. 안양에는 과거 안양LG 치타스가 있었지만 2004년 팬들을 버리고 서울로 연고지를 옮겼다. 그 후 무려 9년 동안이나 안양에는 프로축구팀이 없었다. 하지만 2013년, 안양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결실을 맺어 시민구단인 FC안양이 창단됐고, 마침내 2024년 11월, FC안양은 K리그2 우승을 확정하며 꿈에 그리던 K리그1에 승격하게 됐다. 승격이 확정되자 안양시 전체가 들쭉였다. 지난 11월 9일 승격을 축하하는 거리행진이 열려 시 차원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선수단과 서포터스, 시민들, 최대호 안양시장이 함께 “수카바티 안양!”을 외치며 부동커안은 채 기쁨을 나눴다. ‘수카바티’는 산스크리트어로 ‘극락’을 뜻한다. 안양(安養)은 괴로움이 없고 지극히 안락한 불교의 ‘안양정토(安養淨土)’에서 온 지명이다. 곧 첫눈이 내리면 수리산 병목안시민공원의 차고 맑은 설경이 아름다울 것이다. 나는 괴로움도 고민도 없이 눈 위로 안락한 발자국을 남겨야겠다. 두 뺨이 얼얼한 겨울날엔 역시 콩비지감자탕을 먹어야겠다.



여행정보

안양은 서울 금천구와 인접해 있고 강서·강남에서 차를 타고 30분이면 갈 수 있다. FC안양이 K리그1으로 승격한 만큼 축구 경기를 보러가는 것도 매력적인 선택지다. 서울 출발 기준 강남역에서 541번 버스를 타면 안양종합운동장에 도착할 수 있다.



남극은 보물찾기중... 150만년 된 ○○를 찾아라



신진화 박사의
신비한 지구과학



장재원 극지연구소 연구원

지난달 연구소에서 부서 체육대회 행사로 보물찾기를 한다는 이메일이 날아왔다. 이메일을 읽자 어린 시절 보물 찾기를 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공원 지도를 들고 보물이 공원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힌트 하나만으로 숫자가 적힌 종이를 찾아다녔다.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건지 클수록 좋은 건지도 모른 채 말이다.

남극에서도 흥미로운 보물찾기가 진행 중이다. 이름하여 '남극에서 150만년 된 빙하를 찾아라'이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의 비밀을 풀기 위한 중요한 과학적 도전이다. 지금까지 남극 빙하 코어를 통해 80만년 동안의 기후 데이터를 복원했다. 해양 퇴적물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 남극 빙하 코어와 해양 퇴적물로 복원한 지난 300만년 동안의 기후를 살펴보면, 125만년 전에는 기후 주기가 약 4만1000년으로 짧았지만, 이후 약 70만년 전부터는 10만년 주기로 변화한 것을 관찰했다.

태양은 지구의 외부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긴 시간 규모의 기후변동은 지구의 공전 궤도, 자전축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화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과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밀란코비치 주기(Milankovitch cycle)'와 관련이 있다. 밀란코비치 주기는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밀란코비치 주기에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째, 지구의 공전 궤도가 주기적으로 타원형과 원형을 오가며 약 10만년 주기로 변화한다. 둘째, 지구의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져 있으며, 자전축이 약 2만6000년 주기로 흔들리는 '세차운동'을 한다. 셋째,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약 22.1도에서 24.5도 사이를 4만1000년 주기로 변화한다. 이러한 천문학적 영향은 받아 긴 시간의 기후 주기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125만년과 70만년 사이에 기후 주기가 4만1000년에서 10만년으로 바뀌었다. 주기 변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 세계 연구팀이 남극에서 150만년 된 오래된 빙하를 찾아 나섰다. 수십 년간 레이더 탐사로 빙상의 수직 구조를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남극 동

쪽(동남극)의 중앙부와 가장자리에서 오래된 빙하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서를 얻었다.

빙상의 가장자리에는 독특한 푸른빛을 띠는 '청빙(blue ice)'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빙상의 최하단에는 오래된 빙하가, 최상단에는 최근에 쌓인 눈이 층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빙하가 중력에 의해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최하단의 오래된 빙하가 지표면으로 노출되며 푸른빛을 띠게 되는데 이를 청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빙상을 수직 방향으로 시추하면 연속적으로 형성된 빙하를 얻을 수 있다. 청빙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빙하를 시추하면 특정 시기에 형성된 빙하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빙하를 아주 많은 양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미국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500만~600만년 된 청빙을 확보했다.

연속된 기후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동남극 내륙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150만년 동안의 연속적인 기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좁고 적설량이 적어 오랜 기간 눈이 쌓여 빙하가 형성된 지역을 찾아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가 남극에서 오래된 빙하라는 '보물'을 찾기 위한 심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시추를 시작한 나라는 유럽으로, 'Little Dome C' 지역에서 이번 남극 하계 시즌 동안(북반구 겨울 기간) 목표 깊이까지 시추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빙하 연대가 예상한 것보다 짧아 150만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보물찾기를 하며 종이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빙하를 실제로 분석하기 전까지 남극에서 확보한 빙하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남극에서 150만년 된 빙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 탐험의 승자는 어느 나라가 될지 궁금하다. 남극 빙하의 코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기후의 비밀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후 시스템의 변동 원인을 알 수 있기를 바라며, 누군가가 이 보물을 찾아내기를 응원하고 싶다. 극지연구소 박사



- 1 남극에서는 150만년 된 빙하를 찾고있어요.
- 2 기후 주기 변화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예요.
- 3 기후 시스템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개인의 선행이 쌓이면, 사회적 자산이 된다고?

최근 유튜브와 해외 언론에서 한국 치안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카페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당하지 않는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있다” 같은 이야기들이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여행객들이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 일 없이 되찾는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한국의 치안 상태와 문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로 설명할 수 있다. 외부효과란 특정 경제 주체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개인의 정직한 행동이 사회 전체에 예상치 못한 혜택을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지키는 문화는 개인의 자발적 선행이 모여 사회 전반의 안전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해 조정된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칠 경우,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과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 간에 무상으로 도움을 주고받던 일이 흔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 이웃끼리 아이를 돌보거나 이삿짐을 옮겨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활동들은 어린이집, 가사도우미, 이삿짐센터와 같은 전문 서비스로 대체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는 급여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장 경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예전의 미풍양속이나 자발적인 선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이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웃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물건을 맡기거나 서로 돕는 일이 흔했지만, 지금은 보안 시스템이나 CCTV 설치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한계와 외부효과 문제를 잘 보여준다.

아무리 시장이 고도로 발전해도 시장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당하지 않는 문화는 법적 강제나 금전적 보상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사회적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신뢰 문화는 서로가 선의로 행동할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선한 행동들이 쌓이면, 정부나 기업이 추가적인 경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도난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에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경비 인력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경제학에서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정직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효과를 의미한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촉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동조성(conformity)을 활용하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한국 사회는 마스크 착용에 익숙하지 않았고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따라 하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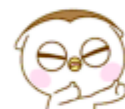
Unsplash

다. 이는 사회적 동조심이 작용한 결과로, 개인의 마스크 착용이 감염 확산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왔다.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는 그의 저서 ‘넛지(Nudge)’에서 사회적 동조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미네소타 주정부가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대다수의 시민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범칙금을 부과했을 때 보다 효과가 컸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납세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제재나 보조금만으로는 유도하기 어려운 사회적 동조를 활용한 긍정적 외부효과와 사례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도 전기차가 대기 오염을 줄이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마스크 착용 독려 사례나 리처드 세일러의 납세 독려 사례는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 외에도 사회적 동조와 심리적 요인을 활용하여 외부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격려할 때,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의 치안과 정직한 문화가 긍정적 외부효과와 좋은 예시가 되듯이, 앞으로도 사회적 동조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외부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강원대학교 교수



최병일 교수의 모든 것의 경제학



시사용어 CHECK

사회 규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바람직하게 이끄는 여러 규범. 관습과 도덕, 법, 종교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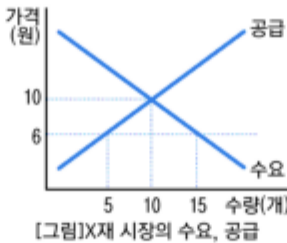
제품 가격 제한하면 소비자는 이득 볼까요



탄매경TEST
공부합시다

<문제>

[그림]은 X재 시장의 수요, 공급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6원으로 설정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 거래량이 증가한다.
- ㉡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 ㉢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
- ㉣ 초과 수요가 5개 발생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이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 ㉠: X의 거래량이 기존 10개에서 5개로 감소한다.
- ㉡: 10의 생산자 잉여는 가격에서 수평인 선과 공급 곡선 사이의 영역으로 가격 상한이 6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 영역이 줄어든다.
- ㉢: 10의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것으로 그림상으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의 영역이다. 가격 상한으로 거래량이 5개로 감소하면서 이 영역이 감소한다.
- ㉣: X의 가격이 6원일 때 수요량은 15개, 공급량은 5개이므로 초과 수요는 10개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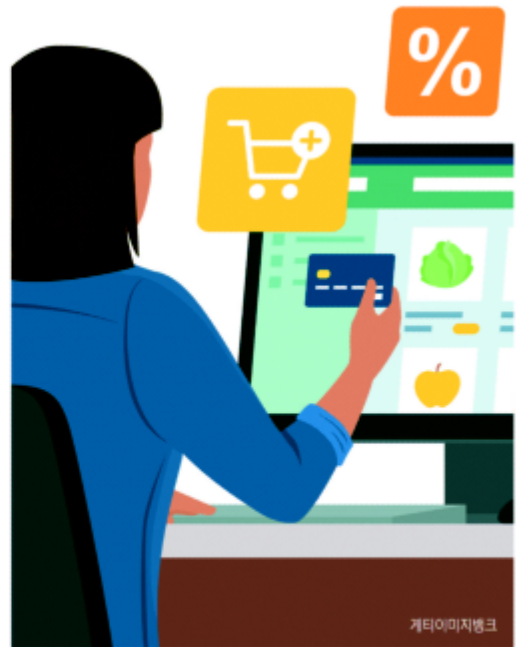
<관련 내용>

이 사례에서 정부는 X재의 시장가격 10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가격 상한을 해당 6원으로 규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X재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가격 규제를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라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분상)',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적용되는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임대차3법)'의 임대료 증액 상한(5% 이내 임대료 증액) 등이 그 사례입니다.

그러면 최고가격제는 그 본연의 취지대로 항상 소비자의 이익 증진으로 이어질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가격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시장에 초과



게티이미지뱅크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만 시장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싸게 재화를 구매할 수만 있다면 소비자의 이익도 증가하지만, 문제는 줄어든 재화를 더 많은 사람이 구매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일부 사람이 더 싸게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전체 거래량이 줄어 소비자 전체의 이익이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떨어진 가격과 줄어든 거래량으로 인해 개별 생산자의 이익은 물론 생산자 전체의 이익이 감소합니다. 더욱이 초과 수요로 인해 암시장(black market)이 형성돼 가격이 최고가격제 도입 이전만큼 상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격상한제가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을 심심찮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가격제는 그 취지와 무색하게 재화를 차지하게 되는 일부 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할지언정 생산자와 소비자 전체 이익의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화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재화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는 어쩌면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데 장애가 되는 가격 규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경영연구소 최봉제 책임연구원



시사용어 CHECK

최고가격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암시장(black market)
물가를 통제하는 상황 또는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제에서 벗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시장.



수능국어 독서 변별력 핵심은 ‘견해 비교’

학습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출 문항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올해 치러진 수능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필요하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24학년도 수능 국어의 출제 기조인 ‘킬러 문항 완전 배제, 적정 수준의 난이도 유지’가 올해 수능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출제 방침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아래에도 ‘독서’ 영역이다. 과거에 비해 현저히 평이해진 지문과 문항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변별력을 확보하는 포인트는 ‘견해 비교’라고 할 수 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유형원과 정약용의 견해 비교’, 2024학년도 수능 15번 ‘왕안석과 오징어의 견해 비교’ 문항은 해당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로 손꼽히며 변별력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올해 수능에서 역시 소위 ‘등급을 가르는’ 문항은 독서 영역에 출제된 ‘견해 비교’ 성격의 7번과 8번이었다. 지문을 살피기에 앞서 문항부터 살펴보자.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②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③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 ④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우선, ㉠과 ㉡을 묶어서 선지 구성을 함으로써 변별력을 조금 더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두 대상을 동시에 다루는 선지일 경우,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놓고도 서술어를 놓치는 실수를 하기 쉽다. 평소애 꾸준히 다음과 같이 선지를 끊어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

- ① 1)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동의한다. 2)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한다.

다음으로, 지문에서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자. 문항에서 묻고 있는 ㉠과 ㉡ 중에 ㉡의 경우 비교적 쉽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을 집중적으로 살펴볼도록 하겠다.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이수민 강사의
국어 클리닉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과 ‘박은식’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지문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 자강회 주요 인사들의 견해>

- ①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가 필요
- ②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음 (★민족의 주체성 간과)

<박은식의 견해>

- ③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
- ④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재구성
- ⑤ 과학 연구가 시급, 철학 역시 필수적
- ⑥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 (★민족의 주체성 강조)

‘견해 비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두 견해에서 직접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견해는 ‘★’표기를 해둔 ②와 ⑥이다. 지문의 맥락상, 대한자강회의 견해를 비판한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문장이 박은식의 견해 ㉠과 결을 같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문항의 정답 선지, ‘②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에 해당한다. 같은 맥락에서 ‘①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동의한다’ ‘④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역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견해 비교’ 성격의 문항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견해’가 아니라 ‘기술적 특성 비교’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자.

메가스터디강사



- 1 ‘대상들에 대한 비교’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
- 2 해당 문항의 핵심은 ‘공통점과 차이점’
- 3 두 대상을 묶어서 다루는 선지일 경우 서술어에 유의



문법 암기보다 읽기의 유창성... 영어 1등급 지름길



주혜연 강사의
영어특강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지도 어느덧 여덟 해가 흘렀다. 2018학년도를 기점으로 상위 4%에게 1등급을 부여하던 상대평가 방식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하면서 영어 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입시에서 영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중학교 때 수능 영어 학습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수학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유효한지 수험생 성적 분포 데이터를 통해 검토하고, 초·중등생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자.

대학수학능력 시험 영어 영역 1등급 비율

예외적인 몇 해를 제외하면, 1등급 비율은 대략 4~7%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영어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자녀의 영어 성적이 당연히 1등급일 것이라 기대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당황스러울 수 있다. 과연 저조한 성적의 원인은 무엇일까?

학년도	시험 유형	1등급 비율(%)
2019	수능	7.43
2020	수능	12.66
2021	수능	6.25
2022	수능	6.06
2023	수능	7.83
2024	수능	4.71
2025	6월 모평	1.47
	9월 모평	10.94

수능 영어 독해의 실제

먼저 2024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빈칸 추론' 문제(오답률 85%)를 살펴보자. 이 문제의 지문은 175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풀기 예상 시간은 약 2분30초다. 지문의 요약 내용을 보면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려면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런 맥락이 없다면 표정만으로 그 감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정답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표정만으로는 감정을 알 수 없기에 어떤 얼굴 그림이든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문장이었다.

상당수 수험생은 제한 시간 안에 지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첫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한다. 2등급 수준의 수험생은 지문의 주제는 어느 정도 이해했으나, 이를 '어떤 얼굴 그림이든 대체 가능하다'란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해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놀랍게도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세부적인 문법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가 아이들이 문법 용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판단해 한국식 문법 암기 학습을 시작한다. 수능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이거나 추상적인 글을 읽고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며, 읽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독해력 향상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읽기의 유창성'이며 이는 단순한 문법 암기가 아닌, 다양한 글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읽는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

수능에 꼭 필요한 어휘력

초·중등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문법 학습 못지않게 열을 올리는 것이 단어 암기다. 이때 영어 단어를 우리말과 1대1로 매칭해 외우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암기식 학습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reflexive'를 '반사적인'이란 뜻으로만 외운 아이의 머리에는 이 단어가 '빛의 반사'나 '상대방의 말을 되받아치는 반사' 정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문맥에서 의도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맥락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 가며 이해하는 어휘 학습이 필수적이다. 'reflexive'가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자동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의미한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 이해한다면,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automatic, instinctive 등 유의어로도 자연스럽게 확장해 갈 수 있다. 하지만 단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조금이라도 다른 의미로 쓰이면 새로운 의미를 따로 외워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수능 1등급을 위한 문법 학습

대학 입시 관점에서 문법 학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학교 수업과 평가는 학교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문법 평가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문법 용어 자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며, 충분한 언어 입력(input)을 통해 귀납적으로 언어 규칙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정도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단 한 문제만 출제되며, 이마저도 영어 문장의 큰 구조를 묻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법이 의미 전달의 틀로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수능에서는 세부적인 문법보다 의미 전달을 위한 핵심적인 어법 사항만이 출제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투에서의 승리와 전쟁에서 승리는 다르다. 암기에만 의존하는 학습법은 단기적으로는 내신 성적을 조금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만든다. 수능은 대학에서 영어로 된 학술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투스강사



- 1 초·중등 학습에서도 읽기의 유창성 확보가 필수적
- 2 맥락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확장 이해하는 과정 필수
- 3 의미 전달을 위한 핵심 어법만 출제 잊지 말아야



세포를 발견하게 해준 ‘최고의 장비’

1665년 영국의 로버트 훅(1635-1703)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코르크 참나무의 겉껍질과 속껍질 사이에 있는 두꺼운 껍질 부위인 코르크를 얇게 썬 조각을 관찰하다가 벌집 모양의 구멍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벌집 모양의 구멍이 수도원 내에 줄지어 늘어선 작은 방(cell)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를 ‘세포(CELL)’라고 이름 붙였다. 이것이 최초의 세포 발견이었다. 사실 훅이 관찰한 것은 실제 살아 있는 세포 자체가 아니라 죽은 식물 세포의 세포벽이었다. 그 당시 현미경으로는 더 자세한 세포 구조를 관찰하기가 어려워 훅은 세포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훅의 관찰 결과는 이후 여러 과학자가 세포를 연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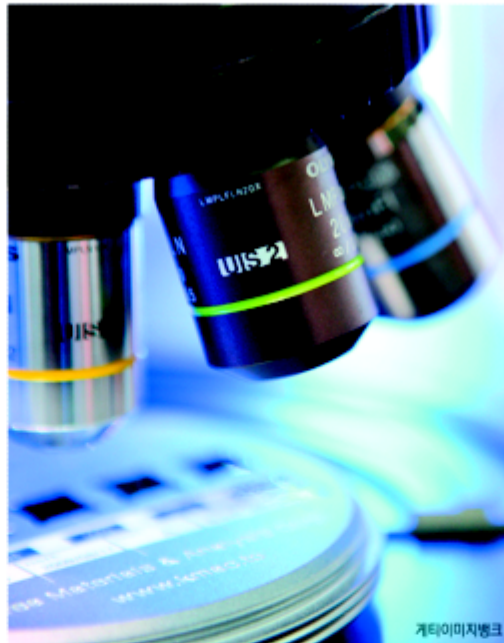
훅이 세포를 처음 발견한 이후 거의 2세기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세포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1838년 독일의 슐라이덴은 식물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모든 식물이 세포로 구성돼 있다는 식물 세포설을 주장했다. 1839년 독일의 슈반은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모든 동물이 세포로 구성돼 있다는 동물 세포설을 주장했다. 이어 슐라이덴과 슈반은 자신들의 연구를 토대로 ‘세포는 모든 생물의 구조적 단위일 뿐만 아니라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라는 세포설을 발표했다. 이후 1858년 독일의 피르호가 여기에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추가함으로써 세포설이 확립되었다.

훅이 세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현미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미경은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세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해주었고, 전자 현미경은 세포 내의 미세 구조까지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다. 현미경의 발달과 더불어 세포 연구에 쓰이는 각종 물리·화학적 연구 방법도 개발돼 이제는 세포의 미세 구조뿐만 아니라 그 기능까지도 상세히 밝혀지게 되었다.

현미경에는 크게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이 있다. 광학 현미경은 우리가 학교 실험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미경을 말하는데, 이는 1590년 네덜란드의 안선 부자에 의해 처음 발명됐다. 광학 현미경은 대물렌즈와 접안렌즈라는 두 종류를 이용하여 물체의 상을 확대하는데, 육안보다 해상력이 1000배나 높은 0.2 μ m다.

해상력은 두 물체 또는 점이 서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최단 거리를 말한다. 만일 두 점이 이 거리보다 가까이 있으면, 두 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뭉쳐진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세포는 200 μ m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맨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현미경이 필요하다. 현미경을 이용하면 해상력이 높아져 세포의 형태는 물론 세포 내부 구조까지 볼 수 있다. 해상력은 시료에 방사되는 빛 또는 전자선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이용한다. 해상력에 한계가 있어서 세포, 핵, 인, 염색체, 엽록체 등 대략적



게티이미지뱅크

인 구조를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포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포의 미세 구조에 관한 연구는 1950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졌는데 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전자 현미경의 등장이다. 전자 현미경은 1933년 독일의 루스카에 의해 발명됐다. 전자 현미경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더 짧은 전자선을 이용하는 까닭에 그 해상력이 광학 현미경보다 뛰어나다. 루스카가 만든 최초의 전자 현미경은 최고 배율이 광학 현미경의 13~17배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후 개선을 거듭한 결과 오늘날의 전자 현미경은 최고 배율이 100만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세포의 미세 구조는 물론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 구조에 관한 연구까지도 가능해졌다.

전자 현미경에는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과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두 종류가 있다. 투과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과 그 원리가 비슷한데, 얇게 자른 표본에 금속을 입힌 후 전자선을 투과시켜 형광 스크린이나 필름 위에 상이 맺히도록 한다. 이것은 세포나 조직 단면을 관찰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반면 주사 전자 현미경은 자르지 않은 표본의 표면을 금속 등으로 도금한 다음 전자선을 주사하여 표본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2차 전자에 의해 상이 맺히도록 한다. 그 결과 입체적인 상, 즉 3차원적인 상이 맺히므로 세포나 조직의 입체 구조를 관찰하는 데 주로 이용한다. 주사 전자 현미경은 최대 배율이 수만 배 정도로 투과 전자 현미경보다 낮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투스 강사



이승후 강사의
과학탐구 특강



- 1 훅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최초로 세포를 발견했다.
- 2 광학 현미경은 육안보다 해상력이 1000배나 높다.
- 3 전자 현미경에는 투과 전자 현미경과 주사 전자 현미경이 있다.

상위권大·지방국립대 정시, 표준점수 따져봐야

지난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났다.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통해 원점수를 확인했을 것이다. 실제 정시전형에서 각 대학은 표준점수, 백분위 지표 등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표준점수는 해마다 다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현시점에 자신의 위치를 가능하기 가장 좋은 척도인 백분위 점수를 반드시 파악해야만 한다.

표준점수 반영 대학은 영역별 점수까지 고려해야

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은 정시에서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백분위 총점만으로는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같은 백분위 총점이라도 영역별 점수는 학생에 따라 모두 다르다. 표준점수의 경우 영역별 만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원점수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24학년도 수능시험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비교해 보면, 국어영역 150점, 수학영역 148점으로 2점 차이를 보였다. 반면 2023학년도 수능시험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비교해 보면, 국어영역 134점, 수학영역 145점으로 11점 차이를 보였다. 2024학년도와 같이 영역별 난이도 및 변별력이 비슷하게 유지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영역별로 차이가 있을 때는 영역별 점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2025학년도 수능의 가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7점, 수학 145점으로 8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1점의 차이를 보였던 2023학년도를 예시로 영역별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어·수학·탐구 표준점수 최고점 비교

구분	국어	수학	탐구	
			사회	과학
2023	134	145	74(정치외법)	75(화학1)
2024	150	148	73(경제, 정치외법)	80(화학2)
2025(추정)	137	145	77(생활과학)	75(지구과학2)

아래 표에서 두 학생의 백분위 점수는 278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A학생은 국어영역이 우수하며, B학생은 수학영역이 우수하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 2023학년도에 적용해 살펴보면 동일 백분위라 하더라도 국어영역보다 수학영역의 표준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수학에서 백분위가 높았던 B학생의 3개 영역 표준점수 총점은 385점, 국어에서 백분위가 높았던 A학생의 표준점수 총점은 381점으로 B학생이 4점이나 높게 나타났다. 정시모집 지원 가능 대학 수준도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기준으로 A학생은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B학생은 중앙대 기계공학부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동일 백분위 총점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 예시

▶ A학생					
구분	국어 (언어와매체)	수학 (미적분)	탐구 지구과학 I	생명과과학 I	총점
표준점수	128	125	66	62	381
백분위	98	87	95	91	278
등급	1	3	1	2	-

▶ B학생

구분	국어 (언어와매체)	수학 (미적분)	탐구 지구과학 I	생명과과학 I	총점
표준점수	121	136	66	62	385
백분위	87	98	95	91	278
등급	3	1	1	2	-

영역별 표준점수는 실제 수능 결과가 발표돼야 확인할 수 있다. 가채점 단계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상향 지원-안정 지원까지 가능한 한 많은 대학을 리스트업해 두도록 하자.

영역별 백분위를 발표하는 학교는 학과별 유불리 확인

전년도 입시 결과는 대학 어디가, 대학 입학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학별로 발표하는 방식이 다르다. 반영 영역별로 각각 공개하는 대학, 반영 영역의 전체 평균을 공개하는 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반영 영역별로 공개하는 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합격 가능성뿐 아니라, 학과별 유불리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다.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백분위 평균 점수는 경제, 경영학부가 높고 영어영문, 국어국문이 낮았지만 환산점수는 영어영문, 국어국문이 더 높았다. 영어영문, 국어국문은 수학 점수가 낮지만 국어 성적이 월등히 높은 학생들이 지원해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해 환산을 하게 되면 국어, 수학 비율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모집단위보다 환산점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성적 조합을 가진 C학생이 있다고 하자. 가채점 예상 백분위가 87.8점인 이 학생은 단순 백분위 평균으로는 영어영문, 국어국문, 경제학부, 경영학부보다 높다. 하지만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 점수이므로 정확도가 낮다. 이 경우 가채점 예상 백분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반영 비율,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해 유불리를 계산해 볼 수 있다. C학생의 경우 모집단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한 결과 국어국문, 영어영문은 전년도 70% 컷보다 크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립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한 가채점 결과 환산 예시(영어 제외)

국어	수학	탐구	국수탐 평균
91	95	77.5	87.8



모집단위	국어	수학	탐구	국수탐 평균
국어국문, 영어영문	91×0.35	95×0.25	77.5×0.15	67.225
경제학과, 경영학부	91×0.35	95×0.4	77.5×0.1	77.6

이처럼 시험 결과에 따라, 또 영역별 점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학, 모집단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가채점을 통해 어느 정도 정시 지원의 토대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12월 6일 성적표를 받은 후에 좀 더 꼼꼼하게 여러 번수를 고려한 세부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미리 토대를 만들어 둔다면 성적 발표 후 차근차근 완성도 높은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금리 내린다” 채권투자자 활짝 웃는데, 왜

채권은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써준 일종의 차용증입니다. 채권은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사채(私債)’를 발행하고, 일반 기업은 ‘회사채’,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공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회사의 실적이나 경기 전망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반해 채권투자자,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의 실적이 어떤 상황인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채권발행자(돈을 빌리는 사람)가 만기 때까지 이자와 원금을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도 위험 클수록 채권이자 더 줘야

국채나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공채는 부도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 예금과 비슷한 이자만 줘도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위험 수준을 넘어선 부실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부도 위험이 높은 회사는 그 위험을 보상해줄 만큼 이자를 더 줘야 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의 경우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른 이자를 제시하는데, 보통 신용등급이 A나 BBB등급 이상이면 우량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BB 이하 등급 채권은 좋게 말하면 고수익채권(하이일드 채권),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크본드(쓰레기 채권)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뚝’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 만기 때까지 채권을 살 때 미리 정해놓은 이자를 토박토박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 자체의 가격이 변하는데, 만약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오르면 이를 되팔아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채권가격이 오를까요?

보통 금리와 채권가격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채권 투자에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채권가격이 떨어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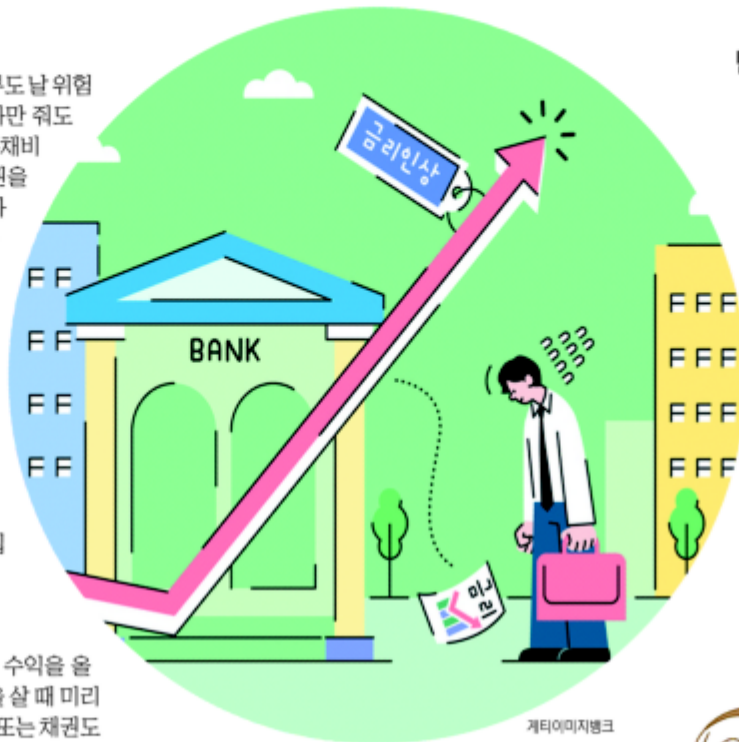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예를 통해서 이해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도 일종의 채권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예금하려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연이자율 2%보다 3%일 때 예금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리가 오를 때 이미 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오늘 연 2% 예금에 가입했는데 내일부터 예금 금리가 연 3%로 오르면 나의 예금통장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손해를 볼 것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에는 채권 금리가 높을수록 좋겠지만, 이미 채권을 산 이후에 시중금리가 올라서 신규 발행되는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금리 채권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1년 후(만기 기간) 1000만원(액면가)을 돌려주는데 이자율은 연 3%(표면이자), 즉 이자로 30만원을 준다고 기재된 채권증서가 있습니다. 만약 시중금리가 3%로 채권의 표면이자와 똑같은 수준이라면 이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발행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연말에 원금 1000만원에 이자 30만원을 합쳐서 103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시중금리가 4%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일 이후에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1000만원



허서운 기자의
틴재테크 첫걸음



게티이미지뱅크

을 투자하면 연말에 4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로 30만원을 주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고 한다면 1000만원보다 더 싸게 내놓아야 팔릴 것입니다. 즉, 기존에 발행된 채권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채권투자의 매력

금리와 채권가격 간의 관계에서 채권투자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져서 채권가격이 오르면 중간에 언제든지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갑자기 뛰어들라 채권가격이 급락한다면?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서 처음에 정해져 있던 이자와 원금을 챙기면 그만입니다.

〈ETNETF로 승부하라〉저자



시사영어 CHECK

기준금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하는 한 나라의 금리 체계의 기본이 되는 금리. 우리나라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삼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에 8번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결정한다.

기업 가치 높여야... 한국 증시도 살아난다



쉽게 풀어 쓰는 경제뉴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밸류업이란 기업 가치를 개선한다는 의미로,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주가 상승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경쟁력이 강해지고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국내 경제 발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가 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의미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이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주요국 13위 수준으로 상장기업 수 대비 자본 효율성이 낮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저평가된 것에는 △재벌 기업 경영 △회계 불투명 △불합리한 지배 구조와 주주환원 △단기 투자 성향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인 '박스피'라는 오명까지 얻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해지자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Q.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골자는 기업들이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며 주주들과 소통하면 그 노력이 시장 평가 및 투자 판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 △밸류업 지원 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들은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경영 목표, 주주환원 계획 등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연 1회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결과를 공시합니다. 정부는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종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해 우수 기업 표창, IR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Q.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정부가 코리아 밸류업지수를 공시했으나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재 9곳으로 현격히 부족합니다. 시작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코스닥) △플랫폼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차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코스피·코스닥 소속 기업 100곳 이상을 편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고려하면 관련 공시를 낸 기업은 28%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 9곳 중 5곳이 금융회사라는 점을 봤을 때 업종별로 균형 잡힌 지수 종목을 보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에게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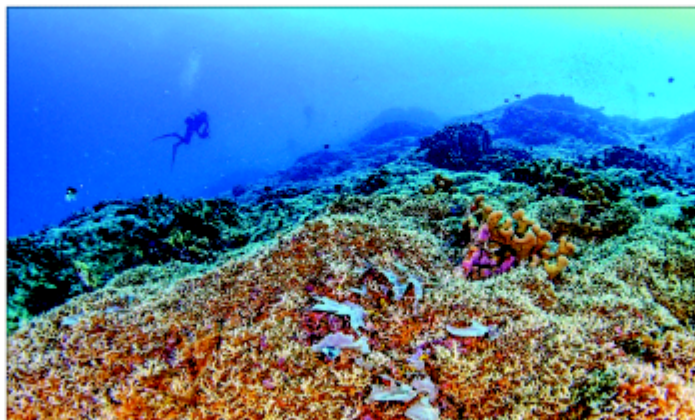
Q. 앞으로의 전망은

프로그램 초반에는 보험, 자동차 등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고 저평가됐던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는 등 효과를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공개 이후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라는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 탓에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자율에 맡겨 기업의 참여도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장사들을 향해 "기업 밸류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시장 참여자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라며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장해린 인턴기자



사진렌즈 속 세상 읽기

300살 넘는 산호초 '세계 최대'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종 산호초가 발견됐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팀과 해양 과학자들은 최근 솔로몬 제도의 남동쪽 끝인 '세 자매 섬' 부근에서 이 산호초를 발견했다. 폭 34m, 길이 32m, 높이 5.5m로 기존 것보다 3배 이상 크며 추정되는 나이는 300살 이상이다. 연구원들은 10억개 폴립으로 이뤄진 '파보나 클레이비스(Pavona clavus)'라는 종의 단일 산호초라고 보고했다. 산호초는 동물군에 속하는 폴립의 집합체로 세계 해양 면적의 0.1%에 불과하지만, 바다 생물 25%의 서식지로 지상의 열대우림 같은 곳이다.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호주와 그레이트배리어리프 등 산호초가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진은 이번 발견으로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NO’ 대신 ‘CARE’ 키즈존 만들자

대전중학교 2학년 우하람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이들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식당이나 카페 등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소위 노키즈존으로 불리는 장소가 계속해서 생기는 현상은 육아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출산을 더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WP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나라에서도 어린이가 드나들 수 없는 식당이나 카페가 생겨 논란이 일었다.

노키즈존은 특정 고객 그룹,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에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키즈존 도입이 아니라 다른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NO’ 대신 ‘CARE’ 키즈존으로 아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친환경 가장한 그린워싱 감시를

광남중학교 2학년 노윤영

최근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경영이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이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인기 팝업스토어에 방문하면 환경 보호를 위한 텀블러나 에코백 사용을 권장한다. 친환경 제품과 탄소중립을 강조하는 광고가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는 부족하다. 몇몇 기업은 친환경 요소를 과장하거나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 없이 ‘친환경 인증’만을 강조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친환경으로 위장한 가짜 친환경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는 그린워싱의 개념과 그 영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가 그린워싱 기준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역시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실제 친환경 제품인지 확인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며 기업들이 ESG 경영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확인할 감시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트럼프發 공세, 한국은 준비됐나

경안중학교 3학년 박지우

지난 8일(현지시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약속해왔다. 모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품 전반에도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국가 대 국가 간 협상으로 바꿔 글로벌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조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분담 협정이 있었지만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지급했을 것”이라며 방위비 인상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북·미 대화 가능성이 크지만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히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껏 한미동맹이 추구해온 ‘북한의 완전 비핵화’ 목표에서 한발 물러서 ‘부분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범죄자 출소후 거주제한 필요

대전중학교 2학년 김민서

지난달 25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겨 논란이 됐다. 주민들의 공분이 큰 이유는 조두순의 새 거주지로부터 걸어서 3분 거리에 어린이집 2곳과 놀이터가 있고, 직선거리 1.5km에 초·중·고등학교 10여 곳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방법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두순이 이사를 하자마자 집 근처에 새 방범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두순과 이웃이 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제시카법’을 근거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선정했고, 그해 10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법예고 브리핑을 했다. 국무회의는 통과했지만,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법 제정에 대한 속의 토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안전망을 마련해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탄매경 TEST

2025년 시험일정

50회

05.24(토)

51회

09.27(토)

52회

11.29(토)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탄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